

漢陽綜合檢査(株)編

會員社探訪 2번째인 이번號에는 非破壞檢査專門用役業體인 漢陽綜合檢査株式會社를 探訪하였다.

電鐵江南驛에서 양재역中間에 位置한 同會社는 本社와 서울直轄出張所가 같은 建物 2, 3層을 全用하고 있었다.

1981年 中半에 設立된 이 會社는 約100余名의 從業員과 6名의 任員으로 構成된 非破壞檢査專門業體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原子力發電所를 비롯한 水火力發電設備檢査를 비롯하여 重工業, 石油化學 및 建築物에 이르기까지 모든 産業分野의 檢査를 網羅하여 質 좋고 迅速한 用役을 提供하기위하여 애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優先 이會社의 司令塔인 蔡和默社長과의 對話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 非破壞檢査技術의 發展史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이 分野從事者들의 어려웠던 過去와 現在를 새삼 느끼게 했다.

社長自身の 말대로를 들으면 非破壞檢査技術은 우리나라 經濟成長에는 重化學工業發展의 힘이 直結되고 그뒤에서 不平도 收支로 따질거를이 없이 묵묵히 힘겨운 用役條件과 값싼 酬價로 一線現場에서 오늘까지 徹夜作業만을 強要當하면서 몸담아온 우리非破壞檢査業界의 役割이 없었던들 오늘과 같은 産業社會는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強辯하고 있었다.

그는 1960年代 우리나라 非破壞檢査技術이 處女期에 있을 때 이를 研修하기위하여 海外에 派遣되어 約1年間의 修練을 쌓았고 官廳, 研究系 또는 學界는 勿論,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會長들까지도 비파괴검사의 必要性이나 이의 認識이 전혀 없을때 13年間의 原子力研究職名을 버리고 1971年初 非破壞檢査業界에 뛰어들어 오늘날까지 專門經營人으로서 또는 技術者로 일하면서 數많은 逆境을 헤쳐왔고 오늘도 이 逆境타파를 위해 業界의 勞使들과 함께 苦悶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蔡社長은 ①放射線取扱者 一般免許의 資格學歷을 大卒理工系에서 工高卒로 낮춘것, ②비파괴검사 기술자격제도화에 대한 정부에의 強力한 勸告, ③비파괴검사수가의 품셈체계화, ④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의 제도적 강력권고, ⑤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설립 아이디어 및 산과조역, ⑥비파괴검사학회, ⑦방사성동위원소협회 등 비파괴검사기술과 주변산업의 여건에 관련된 공공단체 설립에는 꼭 一助를

해왔노라고 自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비파괴검사업계는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면할길이 없이 고된작업조건(주로 철야작업)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노력의 댓가를 충분히 支拂할 立地가 마련되지 못한채 업계의 亂立으로 近10余年을 用役單價의 下落의 길로만 치달는 同業界의 덤핑이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하였다.

非破壞檢査業要件 만큼 까다로운 用役도 없다고 말한 그는 “國家資格(RT, UT, MT, PT, ET, AE 등), 美國의 ASNT Level, Canada의 資格등이 요구되고 code나 Standard等 技術基準도 KS, ASME, JIS, BS, DIN, 기타등과 방사선감독면허, 일반면허 등 실로 한사람의 技術者가 지나야할 자격, 면허, Level 등 까다롭기 그지없는데 用役酬價는 無技術肉體勞動者의 半값도 못되는 地境에서 業을 영위하고 있다고 통변하였고, 게다가 국영기업체나 國策회사들이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애써 민간기업이 개발한 전문기술용역분야를 버젓이 찬탈하여 營業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꼴이 과거나 현재나 장래가 훗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다의 물고기가 물이 흐리다고 해서 그 물을 떠나 陸地로 갈수 없듯이 그 물에서 살다 죽는것 아니냐고 反問한다.

이러한 惡循環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産業의 先頭 Group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萬若 國內用役이 浸沒하여 海外用役으로 代替할 경우 현수가의 약 8배이상인 2,000億원 이상의 外貨가 流出되는 현상이 숫자로도 明示된다고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日本의 研究機關에서 工夫했던 因緣으로 日本의 人事들과 親交가 많아 每年 1~2回以上 學術會議등에 參與하는 등으로 比較的 日本사정에 밝아서 日本人들의 勞使關係가 부러워 恒常 그같은 꿈을 실현키위해 漢陽綜合檢査(株)를 直接設立하였으나 아직은 從業員에게 恒常 未安하고 罪悚할 따름이며 오늘날도 어려울때면 마음이 弱해질때마다 自信을 달래면서, 勞使가 一致되어 뛰고 있다고하였다.

會社의 紹介를 付託하자 現代가 아무리 PR時代라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商品廣告같이 떠드는 게 못마땅하고 또 우리會社가 業界에 좋은 會社들과 技術者들이 더 많아서 특별한 자랑은 없지만 직원들을 잘 만나서 모두 熱心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끝냈다.